

교조님140(2026)년제를 향한 삼년천일을 앞두고 교회장이 해야 할 일

진주님께서는 올해의 ‘연두 인사’에서 4년 후인 입교189(2026)년에 교조님140년제를 거행할 뜻을 밝히셨다. 그 뜻을 받아 교회본부에서는 2월에 ‘교조님140년제 준비회의위원회’를 발족하고 4월에는 동 위원회를 중심으로 ‘구제위원회’를 발족시키는 등, 전교가 한마음 한뜻으로 연제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준비를 추진하고 있다.

삼년천일의 연제활동이 시작되는 입교186(2023)년 1월까지 약 6개월 남짓 남은 지금, 교회장으로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와 연제를 향한 마음가짐 등에 대해 미야모리 요이치로(宮森与一郎) 내통령과 나카타 겐스케(中田善亮) 표통령께 질문을 드렸다.

● 질문자: 모로이 미치타카(諸井道隆, 도유샤 차장 및 편집출판과장, 야마나 대교회장)

Q 진주님께서는 올해 1월 4일 연두 인사에서 “이 길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의미에서 교조님의 연제를 거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므로, 다가오는 교조님140년제를 올리려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장들은 그러한 진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어떻게 이 길을 걸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표통령

우선은 말씀을 받은 후, 될 수 있는 한 빠른 시일 내에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를 잘 의논해 보고, 그 활동을 순조롭게 진행시킬 수 있도록 그에 대한 준비 자세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조님의 연제를 향한 활동은 전교의 모든 용재가 실천해야 할 시순입니다. 그러므로 우선 이 길의 선도자인 교회장들이 해야 할 일들에 대해 잘 생각해 보는 것이 지금의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을 위해 세 가지 요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무엇 때문에 교조님의 연제를 올리는가 하는 것입니다. 연제활동에 임하기 위해서는 우선 근간이 되는 교조님의 연제의 의의를 교회장들이 확실히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둘째, 자신이 맡고 있는 교회의 모습, 즉 지금의 상황을 올바르게 확인하고 파악하는 것입니다. 즐거운 삶으로 나아가는 유구한 시간의 흐름 속에서 교조님140년제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가 문제인데, 저는 작년 4월 ‘앞으로 이 길의 발걸음’이라는 제목으로 교조님150(2036)년제와 입교200(2037)년이라는 큰 시순을 향해, 장기적으로 자신이 맡고 있는 교회의 장래의 모습을 그려보며, 그것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준비해 나아가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교조님140년제는 그러한 목표를 향한 하나의 마디로 삼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자신의 모습과 교회의 상황을 정확히 확인하고 파악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머릿속에 목표를 제대로 그려 넣기가 어렵습니다.

셋째, 연제활동을 향한 마음가짐을 굳건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단히 걸겠다는 각오, 즉 흔들림 없는 강한 의지를 단단히 새겨 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마음작정으로 임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생각하기 이전에 삼년천일 동안, 어떠한 최선을 다해 끝까지 노력하겠다는 각오와 마음가짐을 굳건히 다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장 스스로가 그러한 각오와 마음가짐이 충분하지 않다면 신자 분들에게 제대로 전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교조님의 연제의 의의

Q 교조님의 연제를 올리는 의의에 대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통령

새삼 말씀 드릴 필요도 없이, 연제의 으뜸하루는 1887년 음력 정월 26일, 교조님께서 현신을 감추신 그날입니다. 그날의 아버지의 의도와 거기에 담긴 아버지마음을 자녀인 우리들이 충분히 깨닫고, 가슴에 새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매년 1월(정월)에 춘계대제를 거행하는 것이며, 나아가 10년마다 올리는 교조님의 연제의 의의를 충분히 마음에 새겨야겠습니다.

연제의 으뜸하루는 교조님께서 50년 동안 걸으신 모본의 길의 마지막 날이기도 하며, 그날에 이르기까지의 초대 진주님을 비롯한 당시의 선배선생님들과의 문답들은 천리교교조전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때의 일들은 신앙적인 의미에서 우리들에게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항으로서, 엄격한 리를 깨우쳐 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신을 감추셨지만, 모습만 감추셨을 뿐 앞으로도 변함없이 존명으로 활동하신다고 알려주셨습니다. 그 당시 분들에게는 교조님께서 현신을 감추셨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슬프고 비통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교조전을 읽어 보면 당시의 상황이 지금의 우리들에게도 충분히 느껴집니다. 그러나 지금의 우리들은 교조님을 뵈는 적도 없으며, 존명으로 활동하시는 교조님 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 당시의 선배선생님들의 슬픔이나 괴로움을 교조전을 통해 읽어 보아

도 책을 덮으면 잊어버리게 됩니다. 이것은 지금의 우리들이나 장래 이 길의 후계자들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기한을 정해 놓고 교조님의 연제활동에 임해 수호를 확실하게 받는다면, 존명으로 활동해 주고 계시는 교조님이 보다 가깝게, 인도해 주시는 어버이마음을 보다 따뜻하게 느낄 것이라고 믿습니다.

Q 표통령님께서서는 올해의 춘계대제의 신전강화에서 고인(故人)의 연제와 교조님의 연제의 차이점에 대해 언급하셨습니다.

표통령

그때의 강화에서는 연제의 차이점 보다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교조님의 연제에 대해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서, 교조님의 연제와 고인의 연제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돌아가신 분의 연제는 고인의 인품이나 발자취를 기리기 위해 올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조님의 연제 또한 처음에는 그러한 면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교조님 재세 시에 활동하셨던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시고 게다가 교조님의 모습이나 목소리를 들은 사람 또한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년마다 올리는 연제를 통해, 교조님의 모본과 교조님의 모습, 그리고 교조님의 어버이마음을 추구하는 일을 확실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교조님의 길에서 멀어지게 되면 이 길의 빛을 놓치게 됩니다. 교조님의 연제를 올리는 의의로서 이러한 점의 중요성을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삼년천일을 어떻게 걸어야 하는지

Q 내년부터 시작되는 삼년천일을 어떻게 걸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내통령

지도말씀에

어려운 것은 말하지 않는다. 어려운 일을 하라고도, 터무니없는 일을 하라고도 하지 않는다. 모두 하나하나 모본의 길이 있다. 모본의 길을 걷지 못한다고 해서는 아무것도 안 된다. (중략) 50년 동안의 길을, 50년이나 30년이나 걸으라 하면 안 될 테지. 20년이나 10년을 걸으라고도 안 한다. 그저 10년 가운데 셋이야. 사흘 동안의 길을 걸으면 되는 거야. 기껏 천 날의 길을 걸으라고 하는 거야. (중략) 어떠한 사람이라도 모본대로 길을 걷는다면 모두 모본과 같은 리로 받아들인다.

(1889. 11. 7)

라고 알려주셨듯이 교조님께서 50년 동안에 걸쳐 보여 주신 모본의 길을 우리들은 나날이 조금씩이라도 견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50년이라는 긴 세월을 교조님처럼

림 걷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기한을 정해서 3년 동안 걸으면 교조님의 모본과 똑같이 받아들여 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저 사흘 동안이라고 표현하신 3년을 정성껏 걷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는 자식이 할 수 있을지 없을지,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몰라도 힘껏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기특하게 여기며 기뻐합니다. 아버지신님께서도 그러한 눈으로 우리 자녀들을 지켜봐 주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그저 '셋'이라고 말씀하신 3년만이라도 즐거운 삶을 향해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교조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거기에 새로운 이 길의 전개라는 수호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3년으로 기한을 정해 연제활동에 임해 온 것이며, 또한 그것은 지금까지 아버지신님께 지도말씀을 여쭙고 걸어온 길이므로, 다음에 맞이할 연제도 우리들은 똑같이 3년이라는 기한을 정해 놓고 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표통령님께서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표통령

지도말씀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는 정성의 길, 어쨌든 걷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1907. 5. 8)

라고 가르쳐 주셨듯이 기한을 정해 놓고 실천함으로써 이루어 낼 수 있는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3년이라는 기한을 정해 3년 동안 같은 힘으로 정성을 다해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3년 동안 변함없이 정성을 다하겠다는 마음작정을 하지 않고서는 계속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연제활동이 시작될 내년 1월에, 3년 동안 힘껏 노력하겠다는 결의를 다지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모든 교회장들이 같은 출발선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기한을 정해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까?

표통령

네, 그 점을 확실하게 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 모본을 걷는다는 것은

Q 삼년천일이라는 기한을 정해 모본의 길을 걷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모본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내통령

교조님께서 50년 동안에 걸쳐 걸으신 모본의 길의 전반은, 스스로 극빈에 빠지심으로써 친척이나 집안 사람들,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게도 이해 받지 못하신 기간이었으며, 후반은 관헌의 압박을 받으시면서 걸으신 기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교조님께서 그러한 길을 걸으신 이유는, 그때까지 아무도 모르던 어버이신님의 존재와 섭리에 대한 진실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였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길이라도 마다 않고 기꺼이 걸겠다는 태도이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교조님의 연재를 맞이하기에 앞서 다시 한번 교조님의 모본을 따라 걷는 것인데, 지금 우리들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은 교조님처럼 주변 사람들이 이 길을 이해할 때까지 정성을 다해 노력하고 있는지를 자문자답해 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조님께서 50년의 길을 걸으시고, 정명을 25년이나 줄이기까지 하시면서 촉구하신 근행을 철저히 올리는 것과 구제활동에 정성을 다해 노력하는 것을 우리들 스스로가 몸소 실천해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50년의 모본을 따른다는 것은 교조님과 같은 마음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길을 알릴 수 있을 때까지 정성을 다해서 전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며, 교조님께서 현신을 감추면서까지 고대하시던 것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이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Q 그 점에 대해 표통령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표통령

‘모본을 따른다’라는 말은 이 길에서 자주 쓰는 말입니다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어려운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교조님의 흉내를 낸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따른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지금의 시점에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교조님께서 무엇 때문에 모본의 길을 남겨주셨는지, 그 ‘무엇 때문인지’라는 점에 대해 확실하게 이해하고, 교조님께서 ‘그래, 그러면 되는 거야.’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도록 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이 길에 전념하는 사람이 아니면 걷기 어려운 길이 아니라, 모든 용재들이 각자의 입장에서 교조님께서 ‘그래, 그러면 되는 거야.’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도록 걸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 걸음은 사람마다 각각 다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선은 각자가 스스로 ‘모본을 따른다’는 것은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인지 잘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 나날이 교조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도록 밝게 용솟음치면서 걷도록 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감사와 은혜보답의 실천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을 전교의 모든 용재가 공통된 기본으로 하여, 각자의 입장에 맞추어 잘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내통령

저도 표통령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하여 점점 먼 곳으로 나아가 활동해야 하겠습니다.

근방사람 어서어서 건지고싶다

그러나 마음속을 몰라주어서

(신약가 제4장-6)

라고 알려주셨듯이, 가까운 사람들을 도우려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 결과는 가까운 쪽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먼 곳에서 결과의 꽃이 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가에서도 ‘어서어서 건지고싶다’고 알려주셨듯이 먼저 이 길을 전해야 하는 것은 ‘근방’입니다. 우선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 길을 전하려는 노력을 거듭함으로써 바로 결과가 나타나지는 않더라도 먼 곳에서 꽃이 피게 되는 것이 이 길의 리얼지도 모릅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길의 이야기를 전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가까운 사람들에게’를 슬로건으로 하여, 우리 모두 연제활동에 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님의 수호의 세계는 우리 인간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실천했다고 해도 바로 싹이 트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도 가까운 사람들에게 나날이 교조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노력을 거듭하는 것이 중요하며, 바로 그 자리에서 싹이 트지 않더라도 어디에선가 반드시 싹이 트는 수호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마디를 통해 마음의 성인을 추진한다

Q 그런데 지금의 시운을 생각할 경우에는 세계에서 맹위를 떨치고 있는 감염증의 만연이나 그것으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곤란, 또한 전쟁 등의 큰 사정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세계의 현상을 통해 아버지신님, 교조님께서서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깨우치기를 바라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표통령

현재는 세계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가 아직 종식되지 않은 상황이며, 전쟁이 일어나는 등 세계적인 규모의 사정을 보여 주고 계십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것들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사자들을 비롯하여 세상에는 여러 입장과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은 용재로서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잘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직접적인 일에 힘을 보태 돕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만, 용재라는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지금 세상에는 교조님께서 가르쳐 주신 즐거운 삶과는 상반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들에게는 인류가 지향해야 할 즐거운 삶이라는 목

표가 있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가르쳐 주신대로 진실한 가르침에 따라 코로나도 전쟁도 없는 세상을 지향해 간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은 즐거운 삶을 지향한다. 그것이 실현되면 감염증의 확산이나 전쟁도 없어진다. 우리들에게는 교조님께서 가르쳐 주신 즐거운 삶으로 바르게 나아갈 수 있는 모본의 길이 있으므로, 그 길을 착실하게 따르도록 한다. 그러기 위해 구제한줄기, 근행한줄기의 길을 단단히 견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기본을 제대로 실천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하므로, 가르쳐 주신대로 실천하면서 함께 즐거운 삶을 지향해 나아갈 사람들을 늘리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교회가 번영하게 되는 길이기도 하므로, 각 교회는 그것을 목표로 삼아, 해야 할 일이나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 노력함으로써, 그것을 신님께서 받아 들여 주시어 더욱 용솨음쳐 주실 수 있도록 하면서 구제에 대한 수호를 받도록 해야 한다. 이 순서를 단단히 지켜 임하려는 노력을 우선 바라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Q 대통령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

세계에 번지고 있는 감염증이나 전쟁은 왜 일어나는 것일까요. 물론 신님의 의도가 있으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겠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 구체적으로 신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깨우치려고 하신 것인지, 그리고 우리들은 어떤 식으로 활동하면 좋을지를 생각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다툼이 일어나는 것은 모두가 자신의 주장만을 너무 강하게 내세우는 것이 원인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주장만을 관철하고 싶어 하는 마음은 아버지신님의 의도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큰 전쟁뿐만 아니라 작게는 회사나 지역 사회, 그리고 가정 안에서는 부부, 부모 자식, 그리고 교부간에도 마찬가지로입니다만, 자신의 주장만이 옳고 상대방은 틀렸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점점 커지다 보면 결국 세계적인 다툼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용재들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항상 잘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지금의 세계정세를 연제의 시순에 맞추어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연제활동을 시작함에 즈음하여 모두가 함께 공유해야 할 의식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표통령

지금은 전교 모두가 움직여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전쟁 등 교외의 사정뿐만 아니라, 교내에도 큰 사정이 있습니다. 감로대의 마디나 진주님의 신상, 그리고 사정 교회를 해소하는 일 등은 자연적으로 일어난 상황이 아니라 교회본부가 결정한 것으로서,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을 또렷하게 나타내 보여 주셨습니다. 거기에는 우리들의 힘이 미치지 못했다는 부분이 있음을 확실히 깨닫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 지금의 세계 사정까지 겹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래도 아직 모르겠는가. 일어나서 활동하라.’라며 아버지신님께서 촉구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었으며, 또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눈을 돌려 살펴보면 참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에 이 길의 사람들이 제대로 대응하고 있는가 하면 아직은 부족한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세상 모든 사람들을 혼자서 대응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해 이 길 전체로써 대응하여,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구제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되는 때입니다. 이러한 것은 연제활동이라는 시순과 맞서 일어난 일로서, 우리가 더욱 힘을 다해 노력해야 할 큰 과제를 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교회가 지향해야 할 모습

Q 연제활동에 임함에 즈음하여 교회가 지향해야 할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내통령

이 길에서는 어떤 일을 하든지 신님께 먼저 ‘이렇게 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하고 출원한 후에 실시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설립할 때도, ‘이 길을 걷기 위해 아버지신님의 목표를 받아 교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먼저 출원을 하는데, 그것을 ‘마음작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설립을 위해 출원했을 때는 신님께서도 ‘그렇게 원한다면’이라는 마음으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代)가 바뀌어도 교회설립을 출원했을 때의 마음가짐은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꾸로 ‘태어난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라거나, 이 길을 걷는 것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들었기 때문에.’라는 감각으로 변해버린 것 같습니다. 이 점을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길의 교회는 원래 교조님의 모본을 따르기 위한 장소이므로, 그만큼 고생스럽기도 하고, 일반 사회와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이 즐겁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다지 기뻐할 수 없는 날이 많을지도 모르지만, 때때로 보통사람들로서는 경험할 수 없는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이 길의 교회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교회장이면, 교회 월차제에 처음으로 찾아온 사람이 배전 뒤쪽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고 ‘누구실까?’라고 생각할 때의 즐거움이나, 별석 말씀을 듣기 위해 처음 터전으로 안내한 사람의 별석원서를 별석장 접수처에 제출했을 때의 기쁨 등, 그 밖에도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들은 일반 세상 사람들로서는 느껴볼 수 없는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는 길임을 잘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Q 표통령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표통령

교회가 지향해야 할 모습에 대한 생각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교회의 외형에 대해서라든가, 아니면 교회관계자들은 바뀌지 않지만 모두의 눈이 번쩍 뜨일 만한 것을 생각하고 지향하려고 하든지. 지금 교회의 단계가 이러하니 좀 더 이렇게 되도록 해보자 라든지. 교회에 따라서는 상업을 하는 신자가 많다거나, 농업을 하는 신자가 많다는 등, 교회마다 각각의 특색이 있을 것이고, 지역성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변의 상황에 맞추어 ‘이러한 교회가 되면 주변 사람들이 좋아할 것이다.’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도 하나의 생각입니다. 그러한 여러 조건을 감안하면서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활기가 넘치고 사람이 많아지는 것은 교회가 지향해야 할 하나의 모습이 라고 생각합니다. 근행봉사자를 만들기 이전에, 근행을 정확히 올리지는 못해도 교회를 찾아와 주고 월차제에도 참여하게 된다면, 더 나아가 터전귀참을 하고 별석 순서를 거치게 된 후 근행봉사자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소중한 인재와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처음부터 근행에 참석하기를 권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교회에는 교회장과 교인, 그리고 용재 이외에도, 처음 구경하러 온 사람들도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게 하여 누구든지 발걸음을 할 수 있는 ‘문턱이 낮은 교회’를 지향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천리교의 교회는 이른바 생활밀착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직자나 수행자만이 살고 있는 곳이 아닙니다. 많은 신장자가 있거나 교회 자체가 사정을 안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천리교 신자들은 어째서 저런 일을 하는 것일까?’하고 생각하게 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님께서는 ‘이 길의 가르침을 통해 갱생하도록 하라.’고 하시며, 구제하시기 위해 사정을 안고 있는 사람을 인도해 주시는 곳이 천리교의 교회이므로, 오래 전부터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을 받아들여 왔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누구나 들어올 수 있도록 문턱이 낮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어린이식당’을 운영하려고 하면, 관계자 가운데는 ‘왜 그런 것을 하는 겁니까? 전문적으로 복지활동이라도 할 생각입니까?’라며 찬성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어린이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교회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식당에 오는 어린이들을 통해 그 부모나 지역 사람들이 교회를 찾게 되고 교회가 지역 사회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되므로 이 길을 넓히는 것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역시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 시작해야 합니다. 그것은 전문적인 복지활동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을 수 있도록, 또한 교회가 지역 사회에서 필요한 존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어떤 것이든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교회는 관계자들만으로 조석근행이나 월차제를 올리기만 해서는 더 이상의 발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작년부터의 ‘사정 교회 해소’를 비롯한 이 길의 사정을 통해, 우리들에게 교회, 신앙 그리고 이 길은 영원한 리라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는 기회를 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교내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이려는 인식이 아직은 낮은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교회를 맡고 있는 기간 동안만 교회에 대해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하다’라는 의식을 갖고 있지 않고서는 즐거운 삶의 세계에는 이르지 못할 것입니다. 신님께서 보고 계시는 길은 우리들의 일생보다 긴 몇 백년, 몇 천년으로 이어지는 길입니다. 그 과정을 우리 인간들의 힘으로 이어간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즐거운 삶으로 이어지는 길을 배웠으므로 우선 이 길의 선도자인 교회장들이 ‘영원한 것’이라는 의식을 단단히 가져야 하며, 그러한 의식을 기본으로 삼아서 생각하는 교회의 모습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이 길의 교회는 문턱을 낮춘 개방된 교회이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번의 연제활동이야말로 그런 교회로 되돌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표통령

그리고 교회가 지향해야 할 모습에 대해서입니다만,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이란 과연 어떤 것인지, 실은 생각을 해 보아도 상상할 수 없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요?

근행봉사자가 많아서 교대를 해 가며 완벽하게 근행을 올릴 수 있다. 모든 교회관계자가 포교와 구제활동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며, 모두 아무런 주저함도 없이 수훈을 전한다.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모두 모여 기원근행을 올린다. 사람의 왕래도 많고, 소년회나 청년회 활동에는 많은 젊은 사람들이 참가하며, 고령자분들도 각각 자신의 역할을 다해 주고 있다. 이러한 교회가 되려고 상상했다면 언젠가는 세상의 모든 교회가 대교회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대교회는 여러 교회의 집합체입니다. 소속 교회가 각각의 역할을 다함으로써 어떤 면에서든 달성할 수 있는 것이지만, 각 교회마다 단독으로 모든 것을 해내려 하면 현실적으로 개념이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은 실은 생각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Q 그런데 모든 교회장들은 그 점을 알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표통령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이란, 지금 우리들의 단계에서는 알기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버이신님과 교조님께서 바라시는 바람직한 교회의 모습은 반드시 있기 때문입니다. 가령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이 100점 만점이라 한다면 ‘지금 당신

이 말고 있는 교회는 몇 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98점’이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은 약간 겸손하게 대답할 것인데, ‘지금은 20점입니다.’라고 대답한 교회가 갑자기 100점 만점을 지향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20점에서 30점으로, 그 다음엔 35점으로 올라가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것이 이상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30점을 목표로 할 경우에도 갑자기 30점으로 올리는 것은 무리이므로, 우선 21점이 되어야 하는데, 자칫 방심하다가는 19점이나 15점으로 내려갈 수도 있으므로, 우리 교회장들은 우선 30점을 목표로 정하셨다면 그러한 교회는 어떤 모습일지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Q 예를 들어서 지금의 교회관계자 모두가 수훈을 적극적으로 전할 수 있게 되면, 더하기 5점이 된다는 뜻입니까?

표통령

채점기준은 교회장 스스로 정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모두가 막연하게 100점을 지향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100점짜리의 모습은 그리지도 못했으면서 그저 모두가 시키는 대로 100점을 지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모습이 100점의 모습인지도 잘 모르면서 이렇게 하면 100점이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본인 스스로가 100점을 목표로 정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서 들은 것을 그렇게 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런 의식을 갖고 있다 보니,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잘 알지도 못하는 완벽함’을 지향하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욱 용솨음칠 수 있는 과제를 생각해 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우리들은 아직까지는 그런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Q 그러면 노력하고 있음에도 그 결과가 언제까지도 보이지 않는다면 노력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표통령

실은 이미 많은 수훈을 나타내 보여 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기대하고 있는 부분에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기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그러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내고 있는 사람이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지금 교회장으로서 해야 할 일

Q 이제 내년부터 시작하게 될 연제활동을 향한 마음가짐, 그리고 지금 교회장으로서 해야 할 일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시는 바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통령

지도말씀에

각지각처에 명칭 명칭의 리를 내린다. 말하자면 사람이 많이 붐비는 길목이라 한다. (1897. 2. 1)

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사람이 많이 붐비는 길목’이란 이른바 ‘길의 분기점’을 말합니다. 그것은 인생에서의 분기점이기도 하고 터전으로 인도하기 위한 분기점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들을 터전으로 인도하기 위한 분기점, 즉 이정표가 되는 것이 바로 이 길의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을 터전으로 인도해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장의 임무인 것입니다. 교조님의 연제를 앞두고 교회장으로서 포교와 구제활동에 정성을 다해 임해야 함은 물론이고, 인도하려는 사람의 마음이 터전으로, 그리고 교조님의 마음에 더욱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잘 가르쳐서 인도해야 한다는 자각을 단단히 가져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어서 교회장 스스로가 연제활동을 앞두고 ‘올해는 어떻게 걸어야 하는지.’, 그리고 ‘삼년천일을 어떻게 걸을 것인지.’에 대해 확실히 자각해야 할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자신의 눈으로 본 것에 대해, 그 이유를 알아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교회장이 스스로 마음작정한 것을 실천하고 있으면 그 모습을 본 사람이 그 행동을 궁금하게 여기고 물어볼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들로부터 ‘질문을 받을 수 있는 행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교조님의 연제는 이런 것이다. 지금은 이렇게 실천해야 한다.’라고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는 마음작정을 실천하고 있는 모습을 본 주변 사람들이 ‘왜 그것을 하고 있습니까?’라고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신자 분이나 미신자 분들이 ‘뭘 하시는 걸까?’라고 궁금해 할 정도의 마음작정. 그것은 대단한 것이 아니어도 좋으니, ‘매일 뭔가를 하고 계시네.’라고 생각하게 하는 행동을 삼년천일의 연제활동을 시작하기 전인 지금부터 실천해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며, 삼년천일의 연제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을 때, 주변사람들로부터 ‘교회장님, 매일 무엇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무엇 때문에 그것을 계속하고 계십니까?’라는 질문을 받을 수 있도록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Q 표통령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표통령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조님140년제의 연제활동은 2023년 1월부터 시작되므로, 그때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정성을 다하는 좋은 출발이 될 수 있도록 올해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교회본부로서의 생각이기도 하므로 이 점을 모든 교회장님들은

충분히 주지해 주시고 각자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을 교회에 모이게 하여, 이 길을 함께 걸으며, 즐거운 삶을 향해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신님의 수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이 길의 교우들을 늘리는 것에 대해 지금 단단히 생각해야 합니다. 실제로는 신앙인이 줄어들고 있는 현상이므로 근행의 손을 갖추는 것은 단 한 번만으로는 어려운 일입니다만,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늘려 가야 합니다.

근행봉사자를 늘려야 한다고 하면, 어려운 일로 생각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결과의 모습이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가르침을 이해시키고 이 길을 함께 걷는 사람, 즉 신앙의 길을 함께 걷고자 하는 어른이나 아이들, 또한 신앙의 길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늘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한 것부터 시작해야 하는데, 지금은 그 준비단계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장들은 우선 교조님의 연제의 리를 단단히 마음에 새기고, 내년 1월부터 연제활동을 시작할 때, 신자들로부터 ‘교조님의 연제란 어떤 것입니까?’, ‘삼년천일의 활동은 어떤 것을 하는 것입니까?’라는 질문을 받았을 경우,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교조님의 연제를 올리게 되는 교회장님도 계실 것이고, 교회장의 연령 또한 각각 다르실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장의 연령이나 경험에 따라 받아들이는 방법 또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젊은 교회장들은 실수하면서 배우기도 할 것이고 연령을 거듭함에 따라 알게 되는 점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알게 되었을 때는 이미 몸이 자유롭게 움직이지 않는 연세가 되었다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젊은 분들은 연령이 많은 분들의 경험을 배워야 하고 연령이 많은 분들은 젊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이 길은 ‘한마음 한뜻’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세대를 추월해서 교회가 한마음 한뜻이 되는 것. 그리고 지향해야 할 교회의 이미지를 모두 함께 공유하면서 ‘이렇게 되도록 노력하자.’라며 서로 의논을 거듭하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면서 함께 나아갈 수만 있다면 마음이 상당히 든든할 것입니다.

아무튼 삼년천일 동안 기한을 정해, 마음작정을 단단히 하고 끝까지 임할 것. 그리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는지, 3년이 지나면 자신은 어떤 식으로 성인되어 있고 싶은지에 대한 의식을 단단히 가지고 교회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준비를 지금부터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